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17호 【루계 제22969호】 주체99 (2010) 년 1월 17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당의 두리에 뭉쳐 전인민적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물 전달,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 진행

례 성 강 발 전 소 건 설 장 에 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물을 전달하며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례성강발전소 건설자들의 궐기모임이 15일에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최룡해 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상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발전소건설자들과 청년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선물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모임에서는 최룡해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발전소건설지휘부 책임자 류정민, 례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리원섭, 발전소건설기동대 대장 최명진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해벽두에 완공단계에 들어선 례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고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많은 륜전기재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거창한 언제와 발전기실을 비롯한 공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계단식발전소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와닥닥 끝내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은 례성강에 일떠서는 발전소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하면서 건설을 다그쳐 끝낼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면불휴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견결한 혁명가,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가 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일군들이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단계별, 대상별전투목표를 바로 정하며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공사를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 청년2호발전소건설을 최단기일내에 끝내고 3, 4, 5호발전소건설을 다그쳐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면하여 3, 4, 5호발전소건설장들에서 가물막이, 언제기초굴착공사과제를 일정대로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발전소건설기동대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당의 은정이 깃들어있는 륜전기재들을 애호관리하며 만가동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련관단위들에서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강재, 세멘트를 비롯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 청년돌격대원들이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심 장 의 화 답

◇ 지금 온 나라 각지에서는 새해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궐기모임들이 련일 진행되고있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농업근로자들과 청년들, 녀맹원들과 각 도의 기관, 기업소종업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오늘의 총공세의 맨 앞장에 서겠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겠다.》, 《대고조시대의 청년영웅이 되겠다.》, 《전국에 사회주의경쟁을 벌릴것을 호소한다.》, 이것이 궐기모임장소들에서 터져나오는 신념의 목소리들이다. 이 땅 수천만 인민의 심장이 당의 부름에 한몸바칠 일념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당의 부름에 한모습으로, 한목소리로 열렬히 화답해나서는 그런 혁명적이며 충직한 인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의 기치이고 실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과 인민은 일심동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는 정말 좋은 구호라고, 이 구호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 군대와 인민만이 내놓을수 있는 구호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꺾을수 없는 의지이고 배짱이다.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성강의 로동계급이 세계야금계를 들었다 놓는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고 희천의 용사들이 선군시대를 진감하는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창조하였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산악같이 떨쳐나 지난해를 조국청사에 특기할 변이 난 해로 빛나게 장식하였다.

당에서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이런 영웅적인 군대와 인민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이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이다.

◇ 우리의 천만심장은 당의 위업을 끝까지 받들어갈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으로 세차게 맥박쳐야 한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창건 65돐까지 년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기발이 되고 불길이 되겠다고 굳게 결의다지였다. 우리는 김철로동계급처럼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당앞에 다진 맹세를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시간, 강행군속도에 숨결과 보폭을 맞추며 전속으로 내달려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결심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맹세가 결코 빈말이 아니며 이 땅우에 인민들의 천만가지 리상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대고조전투장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강 선 을 적 극 지 원

성, 중앙기관들에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많은 파철을 모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보내주었다.

15일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100여대의 자동차에 수백t의 파철을 싣고 강철증산투쟁으로 끓어번지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았다. 많은 량의 파철을 실은 자동차행렬을 맞이한 강선의 로동계급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올해의 대고조에서도 계속 앞장에서 내달릴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성, 중앙기관의 정무원들이 올해에도 강철전선을 힘껏 지원하려는 불타는 애국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은 모든 정무원들이 파철모으기사업에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스스로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였다.

륙해운성, 대성산지도국, 경공업성, 전자공업성 일군들은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파철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켜 많은 량의 파철을 모아들이게 하였다.

지난해 파철모으기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농업성, 채취공업성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이번 지원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밖에도 문화성, 보건성, 출판지도국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여가시간을 리용하여 모아들인 많은 량의 파철을 강선에 보내주었다.

본사기자 리 철 옥

주체적기계공업의 위력 떨치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킨다.
—량책베아링공장에서— 본사기자 강 정 민 찍음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에서

대계도간석지건설 적극 추진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대계도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당에 드리는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광장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들어설 불같은 열의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3호방조제마감막이구간공사와 내부망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 서해안의 넓은 간석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간석지건설장에 모시였던 그날의 영광과 긍지를 가슴에 안고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교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3호방조제마감막이구간공사와 내부망건설에 모든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집중하여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게 하고있다. 공사현장에 내려간 련합기업소일군들은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대담하게 작전하고 전투지휘를 기동적으로 하면서 모든 단위들에서 그날계획은 그날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가게 하고있다.

새해 첫 전투부터 3호방조제마감막이구간공사장에서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3호방조제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에 달라붙은 다사, 청강기계화사업소의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수송이자 곧 공사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자동차의 실동률을 부쩍 높이면서 막돌과 흙을 제때에 수송하고있다.

곽산, 로하, 장송, 석화간석지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과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공법들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공사실적을 높이고 있다.

내부망공사장에서도 총공격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석화,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강추위가 계속되는 불리한 날씨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맡은 공사에서 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며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다사, 로하, 곽산, 장송간석지건설사업소의 건설자들은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공사를 다그쳐 끝내기 위하여 로력과 기계수단들을 집중시키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고 있다.

특파기자 김 기 두

첫 전투부터 본때있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여러 단위의 건설자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본때있게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이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새해에 들어와 첫 보름동안에 방대한 1호발전소물길굴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또한 이들은 설비조립을 본격적으로 다그쳐 높은 실적을 기록함으로써 첫달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습니다.》

현장련합지휘부에서는 청년들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가장 어렵고 힘든 전선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청년돌격대원들에게 깊이 인식시키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발전소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돌격대에서는 언제공사에 총력량을 집중하여 올해에 1호발전소를 조기조업하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데 힘을 넣고있다.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을 맡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강원도,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북도려단과 성, 중앙기관대대, 수도건설부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은 맡은 대상별공사를 제 기일에 끝낼 결의를 안고 산악같이 일떠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함경북도려단과 평안북도려단에서 물길굴공사를 완전히 끝냈으며 평양시려단에서도 마지막돌격전을 벌리고 있다.

발전설비조립전투장에서도 날에날마다 혁신이 일어나고있다. 1호발전소조기조업에서 결정적고리로 되는 기술작업을 맡은 청년돌격대원들과 수력설비조립사업소,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면서 설비수송과 조립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다.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로동계급은 선별장능력을 2배로 확장하고 벨트콘베아를 비롯한 설비들의 보수정비를 최대한으로 다그치고있다. 현장에 파견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도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고 어렵고 복잡한 기술작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8.28청년돌격대관리국 운수기동려단의 운전사들과 량강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도 북방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세멘트와 강재, 설비들을 운반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다.

1호발전소를 하루빨리 조기조업함으로써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려는 청년돌격대원들과 여러 단위 건설자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하여 발전소건설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 궐기모임 진행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종업원궐기모임이 경공업부문 공장들에서 진행되였다.

궐기모임들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랑독되고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편지는 새해의 진군길에 나선 천만군민의 가슴을 혁명적열정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투쟁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부문에서 일하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깊이 간직하고 경공업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나라의 경공업발전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방직공장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신의주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 강계편직공장, 개성애국피복공장에서 진행된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각종 천과 직물, 피복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입는 문제해결에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난해 현지말씀을 기어이 관철할 일념에 넘쳐있는 평양방직기계공장 종업원들도 궐기모임을 가지고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당창건 65돐까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할것을 다짐하였다.

평양기료품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대고조의 선봉에 선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여 기술발전을 앞세우면서 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류원, 보통강신발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일대 공세를 벌림으로써 질좋고 맵시있는 갖가지 신발들이 쏟아져나오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 신의주구두공장에서 진행된 종업원궐기모임에서도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애국적열의와 창조정신을 지니고 생산조직과 지휘,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며 설비리용률을 결정적으로 높여 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들이 제기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의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갈 불타는 결의들은 평양곡산공장, 북창기초식품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도 울려나왔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전반적공정의 기술개건을 추진하고 제품의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하는 한편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맛있고 영양가높은 기초식품과 여러가지 식료가공품들이 집집마다 풍족히 차례지게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강계포도술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최대한 동원리용하고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생산능력을 늘이며 새로 꾸린 공정들이 실질적인 은을 내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평양일용품공장과 평양화장품공장 종업원들도 궐기모임에서 10월의 명절을 커다란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면서 대고조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 공동사설과업관철에서 앞장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자체의 기술개발, 제품개발능력을 높여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는 갖가지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신의주법랑철기공장, 안악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진취적이며 현실성있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기업관리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에서 지닌 책임감을 간직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인 올해에 온 나라가 흥성거리게 하고 김일성조선의 필승불패의 기상을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 ⁂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궐기모임이 각지 농장들과 축산, 과수, 양어, 농기계, 비료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랑독되고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올해공동사설과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행복의 웃음소리가 강산에 넘치는 기쁨과 환희로 빛내이자는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는 우리 인민과 농업근로자들의 열렬한 지향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고 하면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오늘날 진정한 수령결사옹위도 최대의 애국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나서는데 있다고 하면서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전투적구호를 들고 농업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태천군 은흥, 룡천군 신암,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농장원들도 궐기모임을 가지고 올해에 선군시대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높이 떨칠 결의를 표명하였다.

만경대구역 만경대농장과 안악군 오국,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진행된 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주인공이라는 시대적책임감을 간직하고 올해에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증산돌격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올해농업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을 이룩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들이 울려나왔다.

만경대닭공장과 사리원닭공장의 종업원들도 궐기모임을 가지고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고기와 닭알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고산, 사리원과수농장과 평양메기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해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호응하여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는데 기여할 결의를 다짐하였다.

은률군, 황주군농기계작업소 종업원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에 이바지하는 로동계급답게 로력조직과 설비관리를 짜고들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올해농업생산에 기여할 일념을 안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이동수리를 널리 조직전개하여 협동벌에 기계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종업원들과 가스화공정건설자들의 궐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해의 진군길에 들어선 흥남로동계급의 기세는 충천하다고 하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비료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기업소를 찾으시여 비료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가스화공정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는 한편 설비들과 기대들의 정비보수를 제때에 하고 운전공들과 조작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전개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제일군들은 혁신적인 안목과 대담한 작전, 치밀하고도 완벽한 조직사업과 능동적인 전투지휘로 생산자대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비료생산성과로 알곡증산을 담보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전반적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우리의 오곡백과로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궐기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적인 청년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오늘 우리 청년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떠옮길 드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쳐가고있는 청년들의 대오앞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이 세차게 휘날리고있다.

피끓는 우리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위업계승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감을 새겨주며 선군시대 위훈의 창조자들로 고무추동하는 그 기발을 바라볼 때면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민주의 기발아래 하나로 묶어세워 새 조국건설에로 이끌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어려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몸소 마련하신 청년운동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에 기초하여 해방후 제때에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적청년조직인 민청을 창립하고 청년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습니다.》

주체34(1945)년 8월 15일 일제식민지통치는 드디여 끝장나고 조국은 해방되였다.

온 나라가 해방의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이는 속에 조국에 개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시기 참으로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시였다.

해방된 조국땅우에 하루빨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창건하고 인민의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였으며 정규무력건설도 다그쳐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건당, 건국, 건군을 위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조직적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워 새 조국건설을 위한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들이 새 사회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당시 우리 나라 청년운동실태와 관련하여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 청년운동내부는 매우 복잡하였다.

당시 나라의 전반적지역에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여러갈래의 청년단체들이 제가끔 조직되여 활동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각계각층의 청년들을 하나의 조직적력량으로 묶어세울수 있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내오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분렬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년운동의 이러한 형편을 헤아리시고 이미 조직된 공청조직들이 청년대중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청년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핵심적이며 주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투사들을 비롯한 우수한 일군들을 공청조직에 파견하시여 공청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자주 공청조직을 찾으시여 공청대렬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공청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하지만 당시 공산주의청년동맹은 명칭그대로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무산청년들만이 들어갈수 있는 청년조직이였으므로 계급적출신과 정치적동향이 서로 다른 광범한 청년들을 묶어세우는데서는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다.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새 사회건설을 적극 지향하는 적지 않은 청년들이 자기들의 계급적처지로 하여 공청조직에 들지 못하고있었으며 과거 일제의 악선전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청년들은 공청조직을 두고 머리를 기웃거리고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청년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공동의 리념과 투쟁강령, 구호를 내세운 대중적인 청년조직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애국적청년들은 민주주의기발아래 단결하라!》**라는 구호밑에 공청을 주동적으로 해산하고 대중적청년단체인 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할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였다.

공청조직을 민주청년동맹조직으로!

참으로 이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경험이 아니라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지향,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내놓으실수 있는 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혁전의 나날 일제를 반대하는 애국청년들을 항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묶어세우신 풍부한 경험에 토대하시여 민청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주청년동맹의 결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조직되는 민청조직은 공청의 강령과 규약을 그대로 가지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격에 맞는 새 강령과 규약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주청년열성자대회를 시급히 열어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한다는것을 선포하고 민청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34(1945)년 10월 평양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민주청년열성자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회에서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분석하시고 당면한 우리 혁명의 성격과 임무를 밝히시면서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공청이라는 좁은 테두리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민주주의청년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대회에서는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민주청년동맹을 결성할것을 토의결정하고 동맹의 강령과 규약초안을 승인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손수 다듬어주신 전체 조선청년들에게 보내는 선언서가 채택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대회의 결정을 광범한 청년들속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각 도들에서 청년열성자들의 회의를 열도록 하시고 전국의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민청결성을 위한 청년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시였다.

민주조선건설의 선봉대, 초석이라고 불러주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편지를 받아안은 청년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전국의 도, 시, 군, 면들에 민청단체들이 련이어 조직되고 공장, 광산, 탄광, 농촌, 어촌 그리고 학교와 기관들에도 민청조직이 꾸려졌으며 여기에 여러 청년단체들이 통합되게 되였다.

주체35(1946)년 1월 16일 드디여 평양에서는 민주청년동맹결성을 위한 북조선민주청년단체대표자회가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가 시작된 그 다음날인 1월 17일 **《북조선민주청년동맹결성에 즈음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고 민주청년동맹의 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해방후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새 조국건설에로 조직동원할수 있는 대중적인 청년조직이 결성되였으며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시대적 조건과 청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53(1964)년 5월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민청조직을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언제나 청년문제를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5(1996)년 1월 창립 50돐을 맞으며 진행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대표자회에서 사로청조직을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높이 모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선포!

이것은 우리 청년조직을 앞으로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수령님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감으로써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와 청년들의 확고한 결심을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지금 뜻깊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기념일을 맞이한 청년들은 우리 나라 청년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청년전위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김 용 진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해벽두부터 진행하시는 여러 단위들에 대한 현지지도는 어버이수령님의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강성대국건설대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총진군을 얼마나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가.

가스화대상공사를 끝낸 남흥로동계급의 가슴에도 그이를 기업소에 모시였던 잊지 못할 영광의 날이 자나깨나 소중히 자리잡고있어 새라새로운 비약에로 떠밀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던 지난해 5월의 그날을 언제나 가슴에 안고사는 남흥의 로동계급이다.

그날 기업소의 전반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방대한 가스화대상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하고있는 이곳 로동계급이 미더우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윽고 청춘원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기업소일군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일군들은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마음이 못내 무거웠던 그들이였다.

그들의 이런 마음속생각을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곁에 일군들을 나란히 세워주시며 청춘원명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자고, 그러되 다같이 청춘시절을 생각하며 밝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자고 자애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불덩어리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청춘시절, 그이의 뜻깊은 말씀에는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영원히 청춘의 패기와 정열에 넘쳐 부강조국을 위하여 값높은 위훈을 세울것을 바라시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었다.

돌이켜보면 기업소가 《청년》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활력있게 발전해올수 있은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치신 웅대한 구상에 따라 거대한 화학공업기지건설착공의 발파소리를 높이 울리였으며 1970년대에는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여러 생산공정들을 일떠세우고 비료더미를 쌓으며 기업소를 조업한 남흥의 로동계급,

우리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지난 기간 여러 생산공정을 질적으로 완비하고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화학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어찌 남흥의 전변의 력사에 대해 생각할수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뜨거운 추억에 잠겨있는 기업소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가스화대상건설을 언제까지 끝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기업소 전체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이 담긴 맹세를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즉석에서 걸린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기업소를 떠나실 때에는 모두 건강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다정히 손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이 은정넘친 믿음은 남흥로동계급이 지난해말까지 가스화대상공사를 끝내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첫해를 빛나게 결속할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본사기자 김 동 철

비약의 원천, 사랑과 믿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아이띠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뽀르또 쁘랭스

아이띠공화국 대통령
레 네 쁘 레 발 각 하

나는 최근 귀국에서 일어난 강한 지진으로 많은 인적, 물적피해가 났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합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가 지진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리재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99(2010)년 1월 14일 평 양

백두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안고 백두관을 찾는 답사자들

본사기자 리 원 국 찍음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랑의 길에서

귀중한 가르치심

주체83(1994)년 10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나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먹이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다.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제일 걱정하신 문제도 우리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이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수령님께서는 올해에도 몸소 전국농업대회에 참석하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농사를 잘 짓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로고를 바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협동농장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비료생산문제를 비롯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일일이 다 세워주시였다. …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농사문제 때문에 많은 로고를 바치시였다고, 우리 일군들은 수령님의 생전의 뜻대로 농사를 잘 지어먹는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에는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어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실 굳은 신념의 맹세가 어리여있었다.

주체농법의 기본요구

주체88(1999)년 2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내가 주체농법의 기본요구는 농사의 주인인 농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이라고 강조한 다음부터 농촌경리부문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있는데 사실 농사는 농민들의 의사에 맞게 하여야 잘 지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농사를 구체적조건에 맞게 잘 짓자면 농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사일을 잘 아는것도 농민들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농사는 구체적인 실정을 잘 아는 농민들이 주인이 되여 책임적으로 하게 하여야지 아래실정도 잘 모르는 일군들이 이것을 심으라, 저것을 심으라고 하여서는 잘될수 없다고,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존중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사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 농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무시하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정치사업에 큰 힘을 넣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1월 전당당일군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라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조건이 불리하여도 농민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고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것이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생산에 자각적으로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민들이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사일을 제때에 알뜰하고 깐지게 한다면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여도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고, 농촌에서 농민들의 주인다운 자각을 높이고 로력적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농장초급일군들이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민들을 이끌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농업생산을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지침이였다.

종자혁명을 일으키시여

종자혁명을 하여 좋은 종자를 해결하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도 농업생산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산도 축산도 남새도 과일도 모든것이 다 종자에 걸렸다고, 좋은 종자를 놓고서야 그 다음을 이야기할수 있다고 하시며 종자혁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종자혁명을 할데 대한 방침은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종자문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우리 나라 종자개량실태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한 가장 과학적인 방침이였다.

본사기자 렴 철 호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대고조시대의 요구

오늘 우리 당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였다. 여기에는 당을 따라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새겨져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는데서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바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조직사업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수송조직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이 일어날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나게 하고 그것이 곧 인민생활향상에로 이어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하는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목표도 뚜렷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세도 하늘을 찌를듯이 높으며 우리 자립경제의 토대도 대단하다. 문제는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오늘의 대고조진군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으며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매 단계마다 경제관리방법과 체계를 개선완성하여왔다.

우리가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립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올수 있은것은 기업소관리운영방법에 이르기까지 경제사업의 근본원칙과 방향, 방도를 환히 밝혀주며 경제건설을 이끌어온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해에도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정초부터 초강도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계신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험한 눈보라길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새겨져있다.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려는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나가는데서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지도일군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바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조직사업은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하며 생산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로력조직, 수송조직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이 일어날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은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이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나타나게 하고 그것이 곧 인민생활향상에로 이어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하는 지금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충정과 보답의 한마음이 더 큰 기적과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자면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전진하는 경제이며 계획경제의 우월성에 의하여 발전하는 경제이다.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분출시키는데서, 나라의 잠재력을 총동원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보다 더 위력한것은 없다.

지금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생산자대중의 창의창발성이 최대한으로 발양되도록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든데 있다. 생산자대중의 기세에 발맞추어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할 때 더 큰 생산적앙양이 일어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은 집단주의적성격에 있다. 집단의 위력은 무한대이다. 십년이상 걸려야 할 방대한 대규모발전소건설을 불과 몇해사이에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희천속도》 창조자들의 영웅적위훈의 밑바탕에도 집단주의의 위력, 대중적영웅주의의 위력이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투장마다에서 사회주의경제의 집단주의적성격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불꽃튀는 전투를 벌릴 때 더 많은 인민소비품과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게 될것이다.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생산조직과 지휘, 협동생산조직에 이르기까지 력량을 집중할수 있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이다. 대고조의 불길은 계획작성으로부터 수송조직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경제의 본태를 살리며 맡겨진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전투적인 단위들에서 세차게 타번지게 된다.

지금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비약의 통마를 타고있다.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도록 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갈 때 대규모화되고 현대화된 우리의 사회주의경제는 더 큰 용을 쓰게 될것이다.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하는것은 첩단을 돌파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과학기술의 발전은 곧 경제발전속도로 되고있다. 과학기술강국이자 경제강국이다.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첩단을 돌파하며 생산공정을 과학화, 현대화의 토대우에 올려세울 때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들끓는 현실은 세계를 굽어보는 우리 식의 착상, 우리 식의 기술이 탄생하는 첩단돌파의 요람이다. 첩단을 요구하는것도 생산자대중이고 첩단돌파의 기본주인공들도 생산현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이다. 생산자대중이 생산투쟁과 함께 기술혁명에 떨쳐나서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첩단돌파의 포성이 더 높이 울릴수 있다.

우리 당은 일찌기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제시하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우리 당이 이미 오래전에 기술자, 생산자들이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하고 새 기술, 새 제품을 개발하도록 추동하는 기업관리방법을 마련해준것은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선견지명있는 령도인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대흥청년영웅광산에서 우리의 원료에 기초한 마그네샤크링카생산의 주체화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은것도,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차게 두드릴수 있은것도 일군들이 앞체를 메고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이 진취적으로 새 기술을 탐구하고 첩단돌파에 떨쳐나서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벌린것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대동강식료공장을 비롯하여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가 실현된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제품들이 흐름선을 따라 줄줄이 쏟아져나오고있다. 몇년전만 하여도 상상할수 없었던 현실에서 우리 인민들은 행복이 파도쳐오는 소리를 듣고있다.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첩단을 돌파하며 새 기술, 새 제품을 개발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첩단돌파의 포성이 더 높이 울릴수 있다.

지난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단위들은 경제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생산의 효과성을 높인 단위들이다. 이들의 경험은 무엇이나 자기 힘으로 한다는 신심을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 때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수 있고 같은 조건에서도 증산의 동음을 세차게 울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모든 전선에서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여러가지 제품들을 더 많이, 더 질좋게 생산하기 위한 열풍이 세차게 불고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더 많이 증산하고 더 많이 절약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갈 때 쓸모있는 생활필수품들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닿게 될것이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일대 변이 일어나게 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근에도 일군들이 경제작전과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짜고드는것은 대고조진군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경제조직사업을 혁명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정 선 철

용솟음치는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불멸의 위훈으로 대고조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청년영웅, 첨단을 돌파하고 조국의 존엄을 높이 떨치는 유능한 청년인재가 되여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선군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이 펄펄 휘날린다.

선군청년전위들의 억센 기상으로 세차게 퍼덕이는 붉은 기폭아래서 우리 수백만 청소년들은 승리와 존엄으로 영광떨쳐온 조선청년운동의 자랑찬 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선군시대의 청년전위, 선군조선의 아들딸로서 주체의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로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며 우리 청년들을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는 영웅으로, 위훈자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청년운동사의 갈피마다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하기에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청년동맹창립일을 맞이하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의 심장은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날로 강화발전되는 청년운동의 성스러운 전통을 이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갈 한마음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사에 특기할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떨쳐나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전당적, 전국가적인 힘을 집중할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이 그대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심장의 박동이 되여 높뛰고있다.

모든 동맹원들속에 공동사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그 파업관철을 위한 투쟁목표와 구체적인 작전수립으로 위원회안의 모든 일군들이 뛰고있다.

지난 7일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궐기모임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그대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로서의 위력을 높이 떨쳐갈 선군조선청년들의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였다.

《뜻깊은 올해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제일총폭탄, 열혈청년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모든 청년동맹일군들이 청년대중의 사상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는 위력한 송풍기가 되여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게 하겠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용철동무의 힘있는 목소리에서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경사스러운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려는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일군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를 느낄수 있다.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인 청년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선강화하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가장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창조하는 청년영웅, 첨단을 돌파하는 유능한 청년인재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 등 올해 청년동맹이 맡고있는 몫은 매우 크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목표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는 2012년까지 점령하여야 할 전망목표들을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통이 크게 세우고 모든 청년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속도에 자기들의 발걸음을 힘차게 따라세우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하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전투에서 청년동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것은 청년들을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용감한 참전자, 위훈자들로 키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동맹조직이 청년들을 선군혁명전위투사로, 대고조시대 영웅으로 키워내는 정예조직으로 되게 하며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쳐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모든 동맹일군들이 들끓는 청년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상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는 화선식 정치사업을 드세차게 벌려 청년들이 영웅적위훈으로 선군시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겠다는 담대한 배짱과 비상한 각오를 안고 모든 부문에서 새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첨단돌파전의 제일선봉대, 제일전초병으로 되게 하기 위한 전투조직도 진공적으로 짜고들고있다.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면밀한 작전계획을 세운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모든 일군들의 새해전투기세는 대단히 좋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 승리의 신심과 열정에 넘쳐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올해의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의 미더운 모습에서 우리는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들어서는 승리자들을 본다.

글 본사기자 황 철 웅
사진 리 진 명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돌파구는 우리가 열자

청년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부르는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이 황해북도청년동맹 일군들의 심장을 끓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투적기백과 정열에 넘친 청년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앞장에서 기세를 올리고 혁신의 불길을 일으켜야 온 나라가 들끓고 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앙양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의 올해전투목표는 정신이 번쩍 든다.

—청년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키우자!

—청년들을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청년영웅, 청년인재가 되게 하자!

용솟음치는 청춘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떨쳐가려는 청년들의 혁명적열의가 오늘의 총공세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도청년동맹위원회사업은 시작부터 기세가 좋다.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뼈와 살로 새기고 그에 기초하여 올해사업방향과 방법론을 확고히 틀어쥔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이 폐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부문들, 공장과 농촌, 대학의 청년동맹원들속으로 들어갔다.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기동적으로 벌리는 청년동맹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은 그대로 청년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키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이 전투장들마다에서 앞채를 메고 달리니 청년들이 일제히 따라섰다.

어느 공장, 어느 농장에 가보아도 청춘의 심장을 불태우며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선군청년전위들의 미더운 모습을 찾아볼수 있다.

사리원시안의 청년동맹원들이 새해 첫 전투 하루동안에만도 2백여t의 질좋은 거름을 영팡의 땅 미곡리로 실어낸데 이어 도적으로 수만명의 청년들이 13만여t의 거름을 생산하고 많은 파철을 모아 강철전선을 지원하였다는 소식들이 새해벽두부터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올해 정초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서 맞이한 폐성강청년2호발전소건설장의 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은 또 얼마나 열정적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드높은 열의안고 2호발전소의 언제쌓기, 물길굴뚫기를 비롯한 어렵고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고 지금 마지막결사전을 벌려나가고있는 청년돌격대원들,

살을 에이는 한겨울의 강추위인들 층정과 보답의 열정으로 달아오른 청년돌격대원들의 심장을 어찌 식힐수 있으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인 경공업과 농업부문 청년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남다르다.

농업생산은 우리 청년들이 맡자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 곡산군 평암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의 불같은 결의에 화답하여 도안의 모든 농촌청년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사리원방직공장, 사리원신발공장, 사리원대성타올공장을 비롯한 도안의 경공업부문 공장청년들도 일터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돌격전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오늘의 총공세의 돌파구는 우리 청년들의 몫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의 지향, 불같은 열정을 안고 떨쳐나선 도청년동맹위원회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이 올해에 안아올 성과는 얼마나 훌륭할것인가.

본사기자

만풍년의 밑거름이 될 자각안고

숙천군 송덕농장 청년분조에서

숙천군 송덕농장에서 청년분조는 농장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청년들이 선봉이 되여 높은 로력적열성과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며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커다란 흥분속에 받아안은 숙천군 송덕농장 청년분조원들의 기세는 지금 하늘을 찌를듯 높다.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의 농사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갈 비상한 결의를 다진 청년분조원들은 1월의 눈보라속에서도 농사차비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거름실어내기와 니탄캐기, 중소농기구준비 등 모든 농사차비전투가 청년분조원들의 불타는 열정에 의하여 일정계획대로 진척되여나가고있다. 청년분조원들의 일욕심은 하늘에 닿았다. 그들은 올해에 더 많은 거름을 낼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거름생산과 함께 니탄캐기전투도 동시에 벌려나가고있다.

청년분조의 농기구창고들에는 올해농사일에 쓸 여러가지 소농기구들이 빈틈없이 마련되여있다. 그것은 청년분조원들의 깐진 일본새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청년분조에 대한 리청년동맹조직의 관심도 각별하다.

청년동맹일군들의 하루일과는 청년분조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군들은 청년분조원들이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일에 쓸 여러가지 소농기구들이 빈틈없이 마련되여있다. 그것은 청년분조원들의 깐진 일본새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청년분조에 대한 리청년동맹조직의 관심도 각별하다.

청년동맹일군들의 하루일과는 청년분조의 실태를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군들은 청년분조원들이 우리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실속있게 도와주고있다. 숙소도 더 잘 꾸려주고 문화기재도 보장해주며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보아주고있다.

청년분조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올해에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통이 큰 전투목표를 내세웠다.

영농기술학습도 전투다. 이런 각오를 가진 청년분조 분조장 최성일동무를 비롯한 분조의 청년들은 하루일을 마치면 스스로 자리를 같이하고 영농기술학습에 여념이 없다.

과학과 기술을 알고 농사차비전투를 벌리니 요구성도 더욱 높아졌다. 그들은 필지별, 포전별에 따르는 토양분석표에 따라 거름과 흙깔이량을 바로 정하고 어김없이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청년분조는 한가정이나 다름이 없다. 분조의 청년들은 모두가 친형제처럼 화목하며 자체의 힘으로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가고있다.

청년분조에서는 돼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을 많이 길러 분조원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있으며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루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며 일하고있다.

농사를 잘 지어 청년영웅이 되는것, 이것이 청년분조원들의 리상이며 목표이다.

이런 리상과 목표를 지닌 그들이기에 밤은 밤대로 탐구의 열정으로 불타고 낮은 낮대로 기적과 위훈으로 불탄다.

본사기자 최 시 흥

단상

《회답편지》

며칠전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 대한 취재길에서였다.

동행한 리청년동맹일군은 거름생산전투로 들끓는 농장벌을 둘러보며 나에게 의미심장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 농장청년들은 김철의 로동계급이 보낸 편지에 접하고 저렇게 전투현장에서 〈회답편지〉를 쓰고있습니다.》

작업현장에서는 농장청년들이 불꽃튀는 거름생산전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었다.

그 모습을 눈여겨보는 순간 나의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회답편지》라는 말의 진의미가 다시금 되새겨지였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종이에 말할 내용을 글로 적어보내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 농장 청년들이 김철의 로동계급에게 보내는 회답편지는 그런것이 아니였다.

맵짠 날씨도 아랑곳없이 거름질통을 지고 달리면서 그것도 성차지 않아 맞들이까지 들고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뿌리며 줄달음을 놓는 청년들,

그들은 회답편지를 글로 쓰지 않았다. 청춘의 활무대인 드넓은 농장벌에 뜨겁게 새겨지는 위훈의 땀방울, 그것이 바로 김철로동계급에게 보내는 그들의 《회답편지》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을 키우는 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원산봉화피복공장을 두고 사람들은 《청춘공장》이라고 부른다.

생산의 활성기를 맞아 《청춘》이요,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으로 공장의 모습이 나날이 환해지니 또한 《청춘》이다.

하지만 이 모든 자랑을 낳게 하는 제일자랑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일터마다에서 기적을 창조해가는 청년들자랑이다.

이 공장 청년들의 생활일면을 펼쳐보자.

청년학교

이 공장에는 멋쟁이학교가 있다. 무대도 판람석도 청춘미가 나게 꾸린 청년학교이다.

《청춘공장》의 제일자랑

원산봉화피복공장 청년들

그 운영도 활발하다.

새로운 당정책이 나오거나 새 영화, 새 노래가 나오면 청년들은 의례히 여기로 모여든다. 이곳에 한번씩 모여앉고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솟구친다고 청년들은 말한다.

얼마전 청년학교에서는 처녀시절부터 공장에서 일해온 고급기능공들과의 이야기모임이 있었다. 당의 부름따라 《70일전투속도》, 《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위훈을 수놓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새 세대 청년들의 가슴속에 자기 공장, 자기 일터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뜨겁게 새겨주었다.

청년학교를 통한 새 세대 교양육성은 공장당조직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업의 하나이다.

짜고드는 일과

새해에 들어와 공장에서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일과조직을 더욱 짜고들었다.

그에 대하여 공장청년동맹초급위원회 일군은 이렇게 말한다.

《작업시간이 길다고 해서 실적이 오릅니까? 그래서 공장에서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었습니다. 천푸는기계, 자재운반용수직승강기 등 새 기계들도 많이 창안도입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새 세대 청년들의 앞장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당 작업능률이 올라가고 480분로동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조건이 보장되여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노래소리높은만큼 실적은 높아만 갑니다.》

청춘은 열정과 랑만의 시절이라고 한다. 청춘의 열정과 랑만이 넘쳐날수록 일터에는 창조의 동음이 더욱 높이 울려퍼진다.

청년들과의 사업을 그들의 특성에 맞게 하니 얼마나 좋은가.

영예게시판의 주인공들

공장구내에는 조선식 푸른 기와를 산듯하게 얹은 영예게시판이 있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할 올해의 첫 전투와 더불어 영예게시판에 새 혁신자들의 사진이 또 나붙었다.

가공2작업반 김설영, 가공3작업반 지연희, 장금영, 가공4작업반 조선옥, 재단작업반 리은전…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서로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청년들이라는것이다.

더 많은 일을 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는것이라고 영예의 혁신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청년들을 중시하고 대바르게 키우는것은 당일군들의 중요한 과업이다.

공장초급당비서 최건동무는 당세포비서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생산을 좀 잘하지 못한것은 후대들이 씻어줄수 있어도 그들을 잘못 키운 과오는 누구도 보상할수 없다.

이런 당조직, 이런 당일군이 있어 《청춘공장》의 자랑은 커만 간다.

본사기자 림 현 숙

비상한 각오, 애국의 열정

황주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승리의 신심드높이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혁명적대고조의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당의 구호가 곳곳에 나붙은 황주군안의 협동벌이 새해농사차비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고있다.

흰눈덮인 포전마다에 해묵은 거름을 그득히 싣고 달리는 뜨락또르, 자동차들의 행렬, 올해의 총공세에 떨쳐나선 자기들의 발걸음이 더디여지는것만 같아 어러가지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흙보산비료원료를 싣고 승벽내기로 달리는 황주긴등벌의 농장원들…

—군적으로 새해전투의 열흘동안 20여만t의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진행하고 1 000여t의 소석회, 8 000여t의 흙보산비료를 생산.

새해공동사설과 김철로동계급의 호소에 접하고 알곡수확고를 본보기농장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이들의 자신만만한 배짱과 혁명적열의가 협동벌마다에 거세찬 대고조진군의 열풍을 몰아와 혁신적성과들이 계속 이룩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영농준비를 년초부터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드넓은 포전에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이 휘몰아치게 할 애국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군안의 일군들은 새해농사차비작전을 전투적으로 하였다.

주체농법관철을 위한 과학농사에서의 성과는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대중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농장일군들이 포전에 나가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현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하며 이 신작칙으로 농장원들을 혁신에로 이끌어나가도록 그들을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유기질비료로 모든 포전을 기름지게 걸구어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짓자.

새해농사차비의 총적목표를 이렇게 세운 군에서는 지난해 말 철도협동농장에서 유기질비료생산방법과 실어내기를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일군들이 직접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도록 하였다.

군안의 모든 농장일군들이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이는 대오의 나팔수가 되여 올해농사를 본때있게 짓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곡식짚, 풀, 잡관목, 니탄, 톱밥, 벼겨로 거름, 흙보산비료 등 여러가지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실어내도록 농장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리고 그들의 앞장에 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거름원천을 모조리 찾아내기 위해 일을 겉싸게 해제끼고있다. 일군들이 앞장에서 뛰니 농장원들이 분발해나섰다. 온 벌이 끓어번지고 벌마다 김이 문문 나는 유기질비료더미가 시간이 다르게 늘어나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황주긴등벌안의 농장들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여나가면서 농사차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룡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새해농사차비를 시작부터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영웅적위훈과 높은 사업실적으로 빛내이기 위해 분발해나선 농장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벌의 구석구석을 밟으며 토양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구색이 맞게 내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놓았다. 그리고 새해전투에서 모든 로력과 운수수단을 총집중하여 높이 세운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흙보산비료생산일정계획을 매일 평균 1.2배이상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농장원들은 유기질비료생산과 실어내기로 드바쁜 속에서도 바람막이바자와 나래, 말장, 활창대를 비롯한 모판자재준비를 동시에 내밀어 벌써 계획의 많은 몫을 해제꼈다.

유기질비료생산을 짧은 기간에 끝낼 목표를 세운 석정, 외상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많은 흙보산비료와 거름을 생산하였으며 능률높은 운반수단들을 리용하여 실어내기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이 농장들에 뒤질세라 다른 농장들에서도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황주긴등벌안의 농장들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여나가면서 농사차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룡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새해농사차비를 시작부터 통이 크게 내밀고있다.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영웅적위훈과 높은 사업실적으로 빛내이기 위해 분발해나선 농장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은 벌의 구석구석을 밟으며 토양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유기질비료를 구색이 맞게 내기 위한

철도협동농장에서 거름실어내기전투가 한창이다.

기술혁신으로 더 많은 전력을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이며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전반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건적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김철의 로동계급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접한 동평양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한 마음안고 전력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창건 65돐을 전력증산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일념을 안고 떨쳐나선 이 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은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기세를 올리고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발전소참모부에서는 올해에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을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로동자, 기술자들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발전소참모부에서는 콤퓨터에 의한 조종체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설비들을 첨단기술에 의하여 운영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 기술혁신과제가 수행되면 발전설비들을 안전하게 운영하면서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수 있다. 정명수지배인을 비롯한 발전소의 일군들은 전력생산을 늘이는데서 첨단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기술자들속에 알기 쉽게 해설해주며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고있다. 이에 분발해나선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의 전초병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안고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고있다.

발전소참모부에서는 보이라와 타빈발전기들에 새로 받아들인 기술혁신성과들이 은을 내도록 하는데 관심을 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자 열생산직장에 내려간 발전소참모부의 일군들은 기술개조한 보이라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운영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로동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전력증산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이에 고무된 열생산직장의 로동자들은 전력생산을 더욱 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보이라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타빈직장에서는 발전능력을 높이며 증기의 도중손실을 막기 위한 기술혁신과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은 현장에 자주 내려가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사업에서 모범적인 기술자, 로동자들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그들의 열의를 높여주고있다. 이에 분발해나선 타빈직장의 운전공들은 순회점검을 규정대로 하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해나가고있다.

혁신은 운탄직장에서도 일어나고있다.

운탄직장에서는 석탄부림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석탄을 제때에 보이라들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전력생산을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혁신은 전기직장과 화학직장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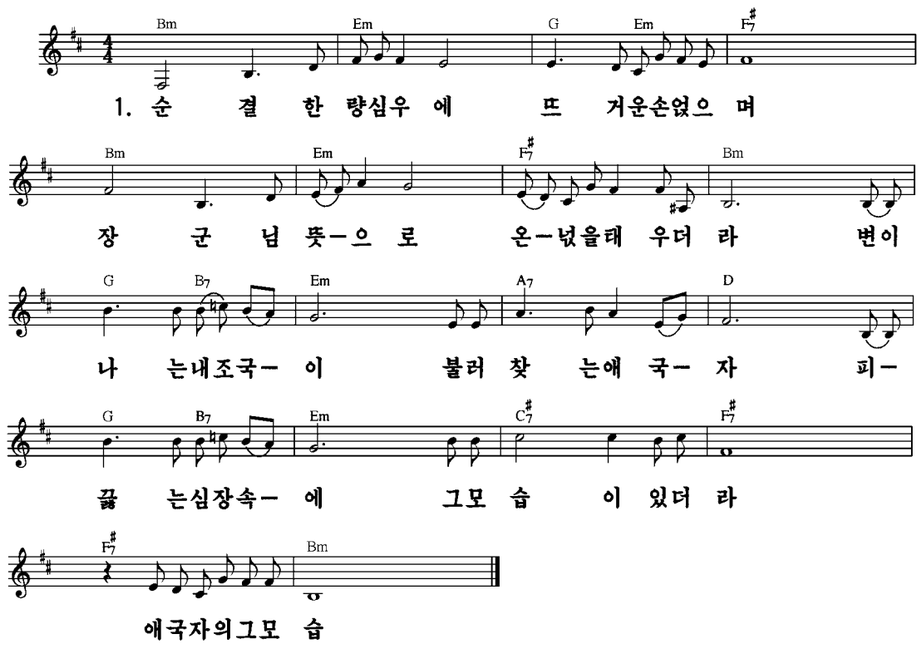
발전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들을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적극 소개하고 일반화하여 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여주고있다.

특파기자 최 재 남

조 국 이 찾 는 모 습

작사 차영도
작곡 우정희

의지적으로 (♩ = 78)



애국자의그모 습

2. 조국의 무거운 짐 두어깨에 떠메고
장군님 그리며 산악같이 나서더라
할 일 많은 내 조국의 기발이 된 선구자
최첨단 높은 령에 그 모습이 있더라
선구자의 그 모습

3. 조국의 번영 위해 그 무엇을 아끼랴
오늘에 바치는 땀 피보다도 진하더라
장군님 부름에 육탄이 된 영웅들
강성대국기념비에 그 모습이 있더라
영웅들의 그 모습

주체체육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체 육 신 문》에 새 겨 진 불 멸 의 령 도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는 선군조국의 영예와 필승의 기상을 온 누리에 힘있게 떨쳐가는 주체체육,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찬 우리 혁명의 년대기들을 더욱 빛나게 장식해온 주체체육의 자랑찬 발전의 길에서 《체육신문》이 창간 50돐을 맞이하였다.

주체49(1960)년 1월 1일 창간호가 발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0년력사속에는 《체육신문》이 주체체육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뜨겁게 빛발치고있다.

일찌기 체육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헤아리시고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체육방침을 제시해주시고 체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

새 조선건설의 첫 시기부터 체육을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시고 북조선체육동맹을 창립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인민을 위한 체육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체육출판물도 발간하도록 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혁명적대교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천리마시대에 마침내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체육신문》이였다.

《체육신문》이 오늘과 같이 체육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적극 떠밀어주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발전할수 있은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체육건설사상과 리론,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불면불휴의 로고가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문, 통신,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은 광범한 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우리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입니다.》

온 나라 체육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즐겨읽는 《체육신문》의 갈피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뜻깊은 올해에 창간 50돐을 맞이한 《체육신문》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새 세기의 첫해인 주체90(2001)년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이해의 정초부터 멀고 험한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장엄한 진군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속에서도 주체체육발전의 래일을 위해 《체육신문》에까지 귀중한 혁명시간을 바치신 경애하는 장군님,

나라일에 그치럼 바쁘신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차례에 걸쳐 《체육신문》이 가지고있는 부족점과 편향들을 깨우쳐주시고 때로는 체육출판물의 성격에 맞게 제호의 글체도 바로잡아주시며 편집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을 접할 때마다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의 가슴속에 차넘친 환희의 격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수십년전부터 주체체육의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며 《체육신문》편집발행사업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였다.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주체체육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편집발행에서 전환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 오히려 지면의 크기와 발행부수를 늘여주시며 신문이 나라의 체육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우리 체육인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위력한 수단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더욱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그 믿음, 그 사랑으로 새 세기의 첫해에 더욱 밝은 래일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체육신문》은 새로운 발전의 길로 줄달음치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체육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에게 주체체육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정신적량식을 끊임없이 안겨주는 체육출판물로서의 《체육신문》의 얼굴이 뚜렷해지고 조국의 영예를 승리로 빛내인 우리 선수들의 체육경기성과에 대한 상보와 경기평, 대중체육활동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 국내국제체육소식, 세계적인 체육과학기술발전추세 등 독자들의 인기를 끌며 나라의 체육발전을 적극 추동하는 기사들과 편집물들이 지면마다에 차고넘쳤다.

한호, 한호의 《체육신문》은 그대로 광범한 대중의 심장마다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 주체체육발전의 래일에 대한 락관을 안겨주고 그들을 선군혁명위업수행에로,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떨치며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하기 위한 체육의 활무대에로 떠밀어주는 힘있는 무기로,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로 널리 애독되여왔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분야에서도 강국의 위용을 떨치기 위한 길에서 《체육신문》이 언제나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끝이 없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체육신문》이 편집형식과 내용을 새롭게 개선하여 광범한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나라의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평가해주시기도 하시고 편집공정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체육신문》이 주체체육발전을 추동하는 사상정신적무기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려질 승리의 그날이 소리치며 다가오는 오늘 나라의 체육발전에서 비약의 폭풍을 터쳐나가는데서 《체육신문》앞에 나서는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체육신문》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앞으로도 당이 안겨준 붓대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주체체육발전사에 새겨진 절세의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나라의 체육을 새로운 비약의 봉우리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북소리, 승리의 북소리가 드세차게 울려퍼지게 할것이다.

본사기자 오 철 룡

인민들에게 더 많은 젖가공품을 보내주는 기쁨 끝없다.
—강계목장에서— 본사기자 장 청 일 찍음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자

선군시대 일군의 풍모와 문화수준

강성대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에 일군들이 지닌 사명과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발전하는 현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 대중의 교양자로서의 자질과 풍모를 더욱 원만히 갖출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일반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높은 문화수준은 높은 혁명성과 함께 일군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풍모의 하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높은 자질과 풍모를 갖추고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실력가형의 일군으로 준비할것을 바라고계신다.

일군들은 문화수준이 높아야 오늘의 대고조에서 송풍기 역할을 원만히 해나갈수 있다.

그것은 일군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야 대중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과의 사업은 단순히 행정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감정과의 사업, 마음과의 사업이다. 감정정서가 풍부하고 심장이 뜨거운 인간성을 지녀야 군중의 존경을 받을수 있고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잘 알고 그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집단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고 사회에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울수 있다.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은 일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일군들이 아는것이 많고 정서가 풍부할수록 현실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할수 있고 사업을 활력있게 창발적으로 할수 있으며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실력가형의 일군의 자질과 풍모는 문화수준을 꾸준히 높이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모든 일군들은 자신들의 문화수준을 높이는것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혁명실천의 절박한 요구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먼저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특히 자기 부문의 당정책에 정통하여야 한다.

자기 분야뿐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력사, 지리, 현대과학기술, 례의도덕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례의도덕을 잘 지키는것은 그 사람의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례의도덕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인품과 문화수준이 평가된다. 례의도덕은 혁명적동지애와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며 동지들사이의 참다운 관계와 집단의 단합과 화목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일군들은 사람들을 언제나 존중하고 뜨겁게 대하며 대중앞에서 무한히 겸손하고 자그마한 간격도 두지 말아야 한다. 일군들은 언어례절, 인사례절, 전화례절, 식사례절을 잘 지킬뿐아니라 공중도덕을 지키는데서도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하여야 하는 과정에 높아지게 된다. 일군들이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 생활을 정서적으로 하여야 자기의 사상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으며 생활을 문명하고 아름답게 꾸려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예술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정상적으로 하며 군중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에도 적극 참가하여 풍부한 감정정서와 건강한 체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의 상식을 많이 알아야 하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에 대한 상식은 물론 정세, 력사와 지리, 음악, 위생과 건강, 동식물에 대한 상식도 알아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감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정 영 화

공동사설과업관철에로 추동하는 화폭

문 화 성 과 미 술 부 문 창 작 가 들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미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이 힘차게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전화화가는 자신이 시대의 기수가 되여 벅찬 현실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창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문화성의 해당 부서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동사설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선전화창작을 기동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국장 송성일, 부원 김유철동무를 비롯한 성의 일군들은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동밀에 공동사설에 접한 즉시 창작현장들에 달려나갔다. 일군들은 창작가들속에 들어가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창작조직과 지도를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만수대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평양미술대학, 철도성미술창작사를 비롯한 미술부문의 창작가들은 불타는 충실성과 높은 창작적열정으로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이 나래치는 선전화창작을 힘차게 밀고나갔다.

만수대창작사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창작가들속에서 공동사설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킨데 기초하여 선전화창작경쟁을 조직하였다. 휴식도 미루고 창작전투에 돌입한 이곳 창작가들의 높은 열정속에 빠른 기간에 100여점의 초안이 창작되게 되였다.

실장들인 공훈예술가 변효찬, 김영호, 공훈예술가 김용동무들은 창작조직을 짜고들어 단 이틀동안에 선전화창작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경사스러운 10월의 팡파레 떳떳이 들어서자!》, 《첨단을 돌파하여 더 높이, 더 빨리!》,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세계여, 우리를 보라!》 등을 비롯하여 수십점의 선전화들이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서 창작완성되였다.

중앙미술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협의회를 열고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부문별과업을 놓고 구체적인 창작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창작가들은 침식을 잊고 창작현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없는 전투를 벌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세계가 우러러 보는 위대한 김일성조선 만세!》 등 근 20점의 선전화들을 창작하였다.

철도성미술창작사 창작가들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가 힘있는 경제선동을 벌리면서 들끓는 현실속에서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이 나래치는 종자를 잡아쥐고 창작전투를 벌려 10여점의 선전화를 성과적으로 창작하였다.

평양미술대학 창작가들은 새해의 불타는 결의를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단위들인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김정숙평양제사공장 등에 달려나가 선전화창작을 전투적으로 벌렸다. 그리하여 《청년들이여 청춘의 힘과 열정을 조국에 바치자!》 등 10여점의 선전화들이 창작되였다.

미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새해 첫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선군시대의 명화창작전투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인도네시아인민협상회의 의장을 의례방문

정춘근 인도네시아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1일 따우피크 끼에마스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 의장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의장은 **새해에도 김정일령도자께서 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하며 그이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공동사설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미국의 제재와 압력책동속에서도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하고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난 시기 조선방문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자주정신과 애국적헌신성에 탄복하였으며 조선의 무료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가 세계에 자랑할만한 인민적인 시책이라는것과 조선이 발전된 기계공업을 비롯한 경제적잠재력을 가진 나라라는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조선에서는 경공업과 농업등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될것이다.

인도네시아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는 수카르노대통령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마련해주신 전통적인 관계이며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전 대통령도 여러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이 관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인도네시아정부와 인민은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강화되기를 희망한다.

【조선중앙통신】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닐 때

경 공 업 성 일 군 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누구보다도 생활을 사랑하고 문화정서적으로, 락천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경공업성 당조직에서는 격동적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문화정서적소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특히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려 이 사업에서 성, 중앙기관들중에서 손꼽히는 단위로 되고있다. 성에서는 해마다 12월 24일을 계기로 성의 책임일군들로부터 부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참가하는 성적인 예술소조경연을 조직하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때로는 성적인 합창경연과 예술소품경연, 때로는 국, 처장들의 중창, 합창경연 등 다채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몇해전 12월 24일을 맞으며 성적인 합창경연을 조직하였을 때였다. 당조직에서는 합창경연에 모든 책임일군들을 빠짐없이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종전에 생산문제로 빠지군 하던 한 일군도 합창경연에 참가하게 되였다.

처음 일군은 다른것은 다 자신있는데 노래만은 정말 힘들다고 무척 주저하였다. 혁명과업수행과 문화적소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별개로 보는것은 잘못된 생각이였다. 정서가 풍부하고 문화적소양이 높은 일군이라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정신을 더욱 뜨겁게 간직할수 있고 군중과의 사업도 원만히 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지체험을 통해서 체득하게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당조직에서는 일군이 합창무대에서 노래를 잘 부를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그 과정에 사무실책상과 현장에만 있던 일군이 《가수》가 되여 무대에 나서게 되였다. 이것을 계기로 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게 된 일군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는 현장에 내려가면 행정실무적인 문제만 론하던 그가 점차 로동자, 기술자들과 인간적으로 깊이 어울리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오락회도 하면서 생산에서 걸렸던 문제들도 대중의 집체적힘과 지혜를 적극 발동시켜 해결해내는 훌륭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실례는 허다하다. 경공업성아래 어느 한 생산단위의 책임일군은 사업이 바쁘다고 하면서 군중예술활동에 낯을 적게 돌리였다. 그러던 그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면서 예술소조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에 노래면 노래, 시면 시 막히는데 없는 《명배우》가 되였다.

일군이 앞장서니 모든 종업원들이 따라나섰다. 오늘 이 단위는 생산도 잘하고 군중예술과 대중체육활동도 잘하는 단위로, 언제나 락천적이고 흥성이는 단위로 되였다. 이 과정에 지난해에는 어려운 생산조건에서도 10월말에 년간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는 자랑도 떨치게 되였다.

높은 문화정서적소양을 지닐 때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 경공업성의 일군들이 실지체험을 통하여 찾은 투쟁과 생활의 진리이다.

본사기자

존경받는 박식가

유 용 동 물 — 자 라

농업성 국장 채경봉동무를 두고 사람들은 《박식가》라고 한다. 농사면 농사, 콤퓨터면 콤퓨터, 철학이면 철학지어 국내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의 하루일과는 당보를 읽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언제나 그의 손에는 책이 쥐여져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등 각이한 모든 분야의 책들을 보며 필요한것은 발취도 하고 묶어도 놓는다. 학습하는것이 그의 생활이고 습성이다.

우리는 그가 발취한 자료들을 묶어놓은 책들중에서 한권을 펼쳐보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 《꽃은 향기가 있어야 벌과 나비가 찾아들고 일군은 인정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온다.》, 《질량보존의 법칙》, 《아보가드로법칙》, 《전로법과 평로법에 대하여》, 《CNC화에 대하여》, 《나프사의 갱질화》, 《인격이란?》…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상식을 소유하기 위한 그의 피타는 노력이 엿보이는 책이였다. 언제인가 그는 부서의 일군들이 콤퓨터를 적극 리용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알고 필요한 서적도 읽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콤퓨터에 보다 정통하였으며 누구나 콤퓨터를 원만히 다루고 적극 활용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그가 가지고있는 어느 한 책에는 각종 농기계부속품들에 대한 명세가 올라있는데 거기에는 매 기계의 부속품총수며 제일 많이 필요되는 부속품들이 표시되여있다. 사색의 흔적이 력력한 책의 갈피는 이런 사연도 전하고있다. 언제인가 어느 한 단위에 내려가 농기계 부속품상태에 대하여 료해하던 그는 대번에 부족점을 포착하게 되였다. 부속품수가 많아 얼핏 보기에는 원만한것 같았지만 가장 필요한 부속품의 수가 적었던것이였다.

그 단위에서는 자기 사업의 빈구석을 깨닫고 곧 퇴치할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은 이렇게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할 때 사업에서 높은 실적을 올릴수 있고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본사기자

자라는 척추동물문 파충강 거북목 자라과에 속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로씨야 등에 퍼져있다. 몸뚱이는 납작하고 갑으로 덮여있다. 등갑은 푸르스름한 재색 또는 누른 밤색이고 겉면에 작은 알모양의 돌기가 있다. 타원형인 등갑의 길이는 20㎝, 너비는 15㎝ 정도이다.

네다리와 꼬리는 짧고 목은 길게 뽑기도 하고 움츠러뜨려 갑속에 넣기도 한다. 주둥이는 뾰족하고 끝에 코구멍이 있다.

강과 호수, 늪, 저수지를 비롯하여 민물수역에서 산다.

물고기와 새우, 미꾸라지, 골뱅이류와 지렁이 등을 먹는다. 주로 물에서 살며 알낳는 때와 특별한 경우를 내놓고는 땅우에 올라오지 않는다.

6월 초순부터 8월 중순사이에 강기슭의 모래밭이나 밭, 풀판 등의 모래가 있는 곳에 구멍을 파고 30~6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연한 분홍색 또는 흰색이며 직경은 2㎝ 정도이다. 알은 해빛의 열에 의해 50~60일이면 까나며 새끼는 6~7년 자라야 엄지로 된다.

겨울에는 강바닥밑에 구멍을 파고들어가 겨울잠을 잔다.

자라고기는 맛이 좋고 영양분과 약성분이 많아 예로부터 고급료리로 유명하였으며 특히 자라피는 어린이보약재로 널리 써왔다.

고려약으로 별갑이라고 하는 자라의 등딱지는 만성질병의 열나기, 어린이삭뻐증(연골증), 간경변, 빈혈, 몸이 여위는 증세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병치료에 널리 쓰인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계군 구락리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서식하는 자라들을 천연기념물로 정하고 적극 보호증식시키고있다.

자라는 유익한 동물이므로 모든 곳에서 적극 보호하고 더 많이 증식시켜야 한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장 일 남

기술혁명의 불길드높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

첨단돌파! 이것이 우리의 공격목표

강계편직공장에서

새해의 장엄한 진군가가 되여 천만군민을 공격전에로 부르는 올해공동사설을 피끓는 청춘의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강계편직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신심드높이 첫 전투에 진입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들이며 우리 당의 핵심력량입니다.》

첨단돌파전의 앞장에 우리가 서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첨단개척의 전초병이 되자!

이런 신념과 의지를 안고 이곳 소조원들은 필열처리기를 더 높은 수준에서 CNC화하기 위한 기술혁신과제수행에 착수하였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전투장에 나선 화선병사마냥 마음의 신들메를 조이고 목표수행의 출발선에 나선 소조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술혁신과제를 하루빨리 수행하고야말 결사관철의 의지가 력력히 내비치고있다.

하다면 그 의지, 그 배짱은 어디서 용솟음치는것인가.

우리의 이야기는 15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던 지난해로부터 시작된다.

그때 공장에서는 150일전투기간에 필열처리기제작을 끝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었다.

설계도 우리 식으로, 제작도 우리의 힘으로!

비상한 각오를 안고 기술혁신과제수행에 떨쳐나선 소조원들과 기술자들에게는 낮과 밤이 따로없었다.

소조책임자 계정경, 소조원 강경미, 장미, 강영희동무들은 그날과제를 끝내지 않고는 현장을 뜨지 않았다. 설비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해 수천리 먼길도 웃으며 떠났고 때로는 과제수행을 위해 밤을 밝힐 때도 있었다.

차순일, 김운남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기술일군들도 소조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설비제작전투를 벌려나갔다.

그 나날 이들모두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끓고있었다. 우리 인민을 더 잘 살게 해주시려고 초강도강행군으로 멀고 험한 전선길을 쉬임없이 걸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인민생활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이제라도 당장 공장을 찾아주실것만 같아 이들은 쪽잠에 들었다가도 소스라쳐 깨여나군 하였다.

ㅡ이 필열처리기를 빨리 완성해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다.

이런 일념을 안고 소조원들과 기술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갔다.

어찌 이들뿐이랴.

도안의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에 합세해나섰고 공장의 일군들과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이 적극 떠밀어주었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설비제작이다보니 성공의 문을 열기가 간단치 않았다.

실패의 언덕을 넘으며 세번째 시운전이 진행되던 날이였다.

초조감과 긴장감이 어려있는 뭇시선들이 집중된 현장의 분위기는 자못 팽팽했다.

시동단추를 누르는것과 동시에 필열처리기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동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기대에서는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천이 흘러나왔다. 실패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무겁게 실리였고 너무도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처녀소조원도 있었다.

ㅡ150일전투날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모여섰던 사람들모두가 맥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뜨락또르도 처음엔 뒤로 가지 않았나요.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해봅시다. 우리야 자강도사람들이 아닙니까.》

락관에 넘친 공장지배인의 이 말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렇다. 그들모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순간의 주저와 동요가 있어서는 안되는 자강도사람들이였고 누구보다 기술혁신의 앞장에 서야 할 자강도의 3대혁명소조원들이였다.

현장에서는 오락회가 벌어졌다.

공장을 들었다놓는 노래소리에 이어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다. 그것은 래일을 확신하는 강자들만이 펼칠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였다.

다음날부터 소조원들과 기술자들은 새로운 신심에 넘쳐 필열처리기를 완성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어 끝끝내 성공의 문을 열어놓고야말았다.

그날은 바로 150일전투를 마감짓는 날이였다.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들은 100일전투기간에 또다시 어려운 기술적문제로 남아있던 양말열처리기를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과정에 강계공업대학을 졸업한 처녀소조원들은 피복분야는 물론 기계장치와 전기장치에도 막힘이 없는 실력가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하지만 소조원들은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 자기들을 기다리고있는가를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100일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지난해 12월 북방의 맵짠 추위속을 헤치시며 또다시 자강땅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강계편직공장의 로동계급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만든 필열처리기와 양말열처리기를 몸소 보아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콤퓨터화된 기대들을 보시며 이것도 《CNC》라고 말할수 있다고 과분한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날 공장의 일군들과 소조원들은 자신들의 자그마한 성과를 두고 못내 기뻐하시며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더 높은 사업성과로 보답해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그날의 그 영광, 그 믿음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보란찬 새해의 진군길에 나선 강계편직공장의 3대혁명소조원들은 우리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공격목표를 따라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최첨단을 향하여!

김일권

성공의 열쇠는 합심

청진항에서

창의고안증서 80여건,

이것은 청진항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이 지난 한해동안 이룩한 성과자료이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대고조전투가 시작되자 이곳 3대혁명소조에서는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우고 매 소조원들에게 분담을 주었다. 이대로만 한다면 많은 성과들을 거둘수 있을것이라고 소조책임자 박정철동무는 생각하였다.

물론 옳은 생각이였다.

하지만 실천과정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수다히 제기되여 일자리가 잘 나지 않아 속을 썩이군 하였다.

운수수단과 설비수리에 필요한 세척제에 대한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던 과정에도 그랬다. 그때까지만 해도 항에서는 세척제용연유가 적지 않게 소비되고있었다. 여기에 드는 연유를 절약하기 위하여 소조에서는 지방에 흔한 원료로 세척제를 대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소조책임자는 소조원 허성호동무에게 이 기술혁신과제를 맡겨주었었다.

새로운 기술혁신과제를 맡은 허동무는 문헌조사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시약들을 얻는 일까지 도맡아안고 밤잠을 잊다싶이 하며 뛰여다니였다. 그러나 그가 들인 품에 비해 성과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이런 실태를 놓고 소조책임자는 자기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분공을 주는데 그치고 집단의 지혜와 힘을 합쳐 잘 도와주지 못했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허동무의 기술혁신안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게 되였다. 기술적으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토의가 밤마다 소조원들의 기술학습시간에 진행되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원료문제를 놓고 모두가 고심하고있을 때 소조원 백명일동무가 송진보다 톱밥을 리용하면 더 좋을것 같다고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것을 들으며 무엇인가 곰곰히 생각하고있던 허성호동무의 입에서 저도모르게 《될것 같습니다.》라는 탄성이 튀여나왔다.

그날 밤 소조원들은 가지가지의 좋은 의견들을 내놓았다.

송광복동무는 첨가제에서 제기되는 문제, 리성팡동무는 톱밥에 대한 성분분석, 박철우동무는 첨가제배합비률문제 등 좋은 안들을 내놓아 진통을 겪던 허동무의 기술혁신안을 성공에로 힘껏 떠밀어주게 되였다.

이런 과정에 박정철동무는 집단의 위력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어렵고 힘들수록 매 소조원들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불러일으키면서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칠 때만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 아닌가.)

집단의 믿음과 기대, 방조속에 허동무는 며칠후 톱밥을 리용한 대용세척제를 끝내 성공시키고야말았다.

소조에서는 이밖에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많은 기술혁신과제를 빠른 기간에 완성할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 소조원들은 동지적으로 더욱 단합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인재들로 몰라보게 성장해나갔다.

실천과정을 통하여 박정철동무는 아무리 어려운 기술혁신과제라고 해도 서로의 힘과 지혜를 진심으로 바쳐나갈 때 반드시 성공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그렇다.

성공의 열쇠는 합심에 있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새해벽두부터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창조의 자욱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혜년에 없는 대풍을 안아올 일념으로 거름생산에서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는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의 당원들과 농장원들,

그들속에는 과학기술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믿음직하게 받들어가며 포전에 남모르는 람구의 자욱을 찍어가는 3대혁명전위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농촌문제해결에서 나서는 기본과업은 농업생산과 기술에서 혁명을 일으키는것입니다.》

드넓은 어러리벌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불타는 열정을 안고 소조원들은 새해벽두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그들은 올해 알곡소출을 더 높일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새해에 들어와서만도 그들이 문헌조사를 위해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모교를 찾아 걸은 길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이 과정에 소조원들은 기사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의 방조도 받아가면서 랭해속에서 모의 생육상태를 높일 방도를 모색하고 올해에 새로운 종자처리방법과 모기르기방법을 도입할 목표를 세웠다. 또한 소조원들은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효능높은 식물성생물농약을 더 많이 확보하고 새로운 식물성장촉진제를 연구하는 등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과제들을 한가지씩 맡아안았다.

그들의 목표는 한갖 욕망이 아니다. 이들에게는 높이 세운 목표탈성의 토대로 되는 지난 한해동안의 귀중한 성과와 경험이 있다.

혁명적대고조의 첫해인 지난해 소조원들은 회전써레에 의한 논수평고루기방법, 들춰갈이보습, 심층시비기계작을 비롯한 영농공정에 필요한 많은 기술혁신과제들을 완성하여 현실에 도입하여 농장의 알곡수확고를 늘이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하기에 여기 농장당조직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소조원들의 피타는 노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소조원들은 큰일을 해놓았습니다. 소조원들이 기술혁신을 성공시키자고 뛰여다닌 자욱이 아마 이 드넓은 포전마다에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을것입니다.》

《새해에 들어와 더 피타게 탐구의 길을 걸어가는 소조원들을 보니 올해의 풍요한 가을이 벌써 눈앞에 펼쳐지는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농장의 어디서나 들려오는 목소리이다. 기술혁명의 앞장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믿음직하게 받들어가는 리원찬, 리학봉동무를 비롯한 미더운 3대혁명소조원들,

그들이 불타는 열정안고 새겨가는 탐구의 자욱우에 주렁질 창조의 열매는 얼마나 훌륭할것인가.

채인철

하나의 지향안고

평양종합인쇄공장에서

지난해 100일전투결의목표를 세울 때였다. 그가운데는 제책검사공정의 콤퓨터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수봉로라를 우리 식으로 완성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수봉로라, 그것은 첨단을 요구하는 높은 기술혁신과제였다.

소조원들이 수봉로라를 우리 식으로 개조해보겠다고 나섰을 때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한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수봉로라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와야만 되는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이였다.

그때 소조원들이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걸고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결의해나선것은 아니였다.

ㅡ남들이 하는것을 우리가 왜 못하겠는가, 해도 더 월등하게 최첨단으로 하자.

바로 이것이 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심장에 체득한 소조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였다.

첨단을 돌파하는것, 바로 이 하나의 지향을 안고 소조원들은 떨쳐나섰다.

어려운 기술혁신과제인것으로 하여 품도 많이 들었다.

수봉로라를 우리 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전투는 처음부터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했다.

수입에 의존하던 수봉로라여서 문헌자료가 부족하였던것이다. 오직 자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 식으로 설계하고 자기 식으로 실현해나가야만 하였다.

그러니 고생인들 오죽했으랴.

고심어린 탐구와 불같은 열정을 바쳐 그들은 마침내 우리 식의 새로운 수봉로라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성공은 아직 멀리에 있었다. 시험에서 실패했던것이다.

소조원들은 손맥을 놓고 나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뿐.

《동무들, 첨단을 돌파하는 길은 쉽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웃으며 맞받아나갑시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 구상을 받드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합시다.》

낮으나 힘있게 울린 소조책임자의 목소리에 소조원들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일어났다.

그들은 새 기술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이악하게 투쟁하여 끝끝내 수봉로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고야말았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성공만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대로 첨단을 향해 비약하려는 소조원들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낳은 민족적자존심의 승리였다.

오늘도 이곳 소조원들은 걷고있다.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첨단돌파의 길을…

글 및 사진 오철권

개발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ㅡ차량설계연구소에서ㅡ 본사기자 찍음

청춘도시로 꾸려갈 애국의 마음

안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우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의 개척자이신 어버이수령님의 력사가 세세년년 변함없이 이 땅우에 흐르게 하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뜻깊은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기 위한 새해의 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바로 이 고귀한 뜻이 소중히 자리잡고있다.

150일전투에서 100일전투에로 용용히 줄달음쳐온 뜻깊은 지난해에 눈부신 변혁을 이룩한 안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바로 그런 지향을 안고 성과를 이룩하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이 적극 발동되기만 하면 3대혁명수행에서 많은 문제들이 풀려나갈수 있습니다.》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은 올해에 기술혁신목표를 더욱 높이 내세우고 신심에 넘쳐 첫 자욱을 큼직이 내짚고있다.

지난해의 성과를 긍지높이 돌이켜볼수록 신심이 백배해지는 그들이다.

18건의 기술혁신, 이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인 안영복, 문명진, 장광진동무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이룩해놓은 성과자료이다.

이 성과들중에는 우리 식 수봉로라제작의 완성도 있다.

바로 그 숭고한 뜻을 꽃피우는데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그날을 앞당기는 길이 있다는 생각으로 일군들의 가슴은 부풀어올랐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안주시를 새 세기의 청춘도시로 전변시키자는 일군들의 이야기는 시민들속에서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안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행복의 토대를 닦아주신 도시인데 강성대국건설의 시대에 더 잘 꾸려보자고 호응해나선 로당원들, 로력과 기술 등을 있는것 다 바치겠다고 억세게 틀어쥔 주먹을 높이 추켜든 지방산업공장의 일군들, 어서 일감부터 달라고 시급기관들을 찾아온 근로자들과 가두녀맹원들…

불같은 충정과 열의속에 온 시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안주시의 《옥류판》으로 이름높은 칠성각을 비롯하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부터 눈부시게 달라지기 시작하였고 뒤이어 시안의 도로망과 상업 및 급양, 편의봉사시설들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졌다. 낮에는 일터마다에서 하루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근로자들이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이면 자기들이 맡은 도로와 꾸리기전투장으로 달려나왔다.

어느날 평안남도도시설계연구소 안주분소에 《폭풍》구령이 울렸다. 긴장해진 눈빛으로 모여든 설계원들앞에서 분소장이 시의 책임일군으로부터 받은 특별과업을 전달하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한 설계원은 말하였다.

《그 특별과업이란 이런것이였습니다. 시안의 상업, 급양, 편의봉사단위가 110여개나 되는데 매 건물의 타일벽도안을 100% 다르게 해야 한다는겁니다. 그것도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하지만 우리 설계원들은 그 요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성대국건설의 시대에 사는 인간들의 일욕심과 배짱이야 바로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설계해도 창조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자기가 사는 도시를 자기들의 힘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꾸려가려는 숭고한 향토애와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은 이들로 하여금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의 나날에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줄달음치게 하였고 더 많은 기적과 전변을 낳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난 시기 민족적양상을 잘 살렸다고 높이 치하하신 칠성공원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는 사업이 진행될 때였다.

푸른 련꽃이 가득한 련못가운데 다문다문 박힌 일곱개 섬의 둘레에 꽃울타리를 두르고 그를 련결한 무지개다리들에 무리등불장식을 하였으며 갖가지 모양의 분수들을 조화롭게 설치하는 등 공원건설이 거의 끝나갈무렵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지금 수도 평양에 민속공원이 일떠선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정들어하신 이 칠성공원에 민속구역을 하나 내오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누구나 좋다고 지지한 이 제안은 즉시 100일전투계획에 반영되였고 실천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희한하게 변모된 시의 수많은 건물들이며 새로 덩실하게 일떠서는 창광원식목욕탕, 미끈하게 포장된 차도로와 색보도블로크로 아름답게 장식된 곳곳의 걸음길들에도 바로 이런 높은 지향과 열정, 래일에 대한 아름다운 꿈과 랑만이 어리여있다.

안주시를 선군시대의 청춘도시로 꾸리는 사업에 누구보다 드높은 열의를 안고 떨쳐나선것은 시안의 녀맹원들이다.

시녀맹위원회에서 돌격대를 뭇는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녀맹원들속에는 안주시를 리상적인 도시로 꾸려주시려고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전하는 한 건축가의 회상실기가 수록된 책을 가슴에 품고온 청천강2동에 사는 서정금동무도 있었다.

《행복만을 알고자란 저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어떤 사랑과 은정속에 태여난것인지 다 몰랐습니다. 바로 이 책을 읽으며 알았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발자취가 어린 이 땅을 제손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싶습니다.》

이것이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였겠는가. 어머니와 딸이 한마음이 되여 달려온 남평1동의 박보부, 김정애동무를 비롯한 모든 녀맹원들의 심장속에 불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삶을 빛내이고싶은 아름다운 지향과 포부였다.

이런 하나의 지향으로 뭉쳐진 대오이기에 김경옥동무를 비롯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은 시안의 자전거길을 번듯하게 새로 내오는 등 말은 전투과제들을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냄으로써 안주시를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도시로 꾸리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마치 새 옷단장이라도 한듯 아름다와진 건물들과 눈부시게 꾸려진 상업, 급양, 편의봉사망들, 실금 하나 찾아볼수 없는 새 도로며 쭉쭉 뻗어간 자전거길…

기적과 전변이 이룩된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며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할것을 다짐하는 이곳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배심은 더욱 든든하다.

ㅡ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 깃든 땅을 기어이 선군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세우리라. 그리하여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리라.

바로 이 신념, 이 의지야말로 나날이 눈부시게 일떠서는 안주시전변의 초석이고 눈부시게 번영할 래일의 뿌리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이들이 가는 길이 천백번 옳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이자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이다.

변이 난 해,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해에 이룩된 안주시의 전변은 온 나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소리쳐 말하고있다.

ㅡ유훈관철, 바로 여기에 승리와 번영의 지름길이 있다.

본사기자 허명숙

초소에 얹고사는 마음

강남릉라도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강남릉라도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원군사업을 잘하고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는 자세로 조국방선을 굳건히 지켜가는 병사들에 대한 사랑은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 그 바쁜 속에서도 그들의 원군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우리 초소》군인들의 전투력강화를 위해 림승화, 강정호, 리우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통이 큰 일판을 벌릴 때 후방가족들인 황춘실, 박경희, 김춘일동무들은 원호물자마다에 친자식을 위하는 다심한 정을 담았다.

초소에서 보내여오는 편지와 사진들을 통하여 총대로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지켜가는 자식들의 대견한 모습을 보면서 후방가족의 긍지와 영예를 되새기며 맡은 혁명임무수행에서도 언제나 앞장에 선 그들이다.

어느해인가는 운행길에서 교장난 군인들의 자동차에 공장운수기재의 부속품을 선뜻 떼여주었고 또 언제인가는 많은 원호물자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을 찾아가 힘있는 경제선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병사들을 떠나 조국의 안전도, 자기들의 행복도 생각할수 없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원군은 깨끗한 량심으로, 응당한 도리로 되고있다.

얼마전 공장에서는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려는 억센 신념을 안고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군인들, 새해벽두에 건설장을 찾아오신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드린 병사들을 위해 그 무엇을 아끼랴.

군인들의 생활과 작업에 요긴하게 쓰일 물자들마다에는 병사들과 어깨를 결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울 공장종업원들의 굳은 결심이 뜨겁게 어려있었다.

창조의 보람 넘치고 행복의 웃음소리 커갈수록 병사들을 위해 더욱 뜨거운 지성을 바치려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송현수

인류사적경사의 해를 마중해가는 만민의 뜨거운 마음

다가오는 2012년은 결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례사로이 맞이할 해가 아니다. 2012년은 우리 조국, 우리 민족, 우리 인민만이 아닌 인류공동의 특기할 경사의 해로 될것이다.

오늘 자주시대의 탁월한 수령,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들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감동적인 력사의 화폭을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지난해 10월 중순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되였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일성주석의 존함은 영원히 빛날것이다》라는 구호들이 결성식장에 나붙어있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 준비위원회 대표들과 파키스탄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의 참가하에 성대히 진행된 결성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 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20세기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적극 벌려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 네팔수상이, 공동위원장들로는 캄보쟈왕궁담당 부수상, 스리랑카대중공보 및 투자장려상인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파키스탄국회 상원 의원인 파키스탄인민당 부총서기,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이, 서기장으로는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이 선출되였다.

결성식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0돐기념 민족 및 지역준비위원회들에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국제적명절로 뜻깊게 기념하는것은 지구상에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가장 큰 지지성원으로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주석의 탄생 100돐을 국제적으로 뜻깊게 기념하는 분위기를 세워나가자.

둘째, 여러 나라와 지역에 조직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준비위원회들의 활동을 필요에 따라 조정, 방조할수 있도록 다음해에 국제준비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2012년 태양절을 세계적판도에서 보다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자.

셋째,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조선에서 진행되는 〈김일성조선 100년대 국제련환모임〉을 비롯한 여러 행사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이 땅우에 김일성주석의 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는데 특색있게 기여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국제적명절로 가장 뜻깊게 맞이하자.

이것이 오늘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서 세차게 끓어번지는 열의이다.

세계 5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교위급인물들, 진보적정당 당수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의 참가하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기념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전국적, 지역적범위에서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지난해 3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몽골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진행된데 이어 4월에는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기념 에싸도르전국준비위원회와 체스꼬준비위원회, 프랑스준비위원회 결성식이, 5월에는 방글라데슈와 캄보쟈, 타이, 민주꽁고 등에서 준비위원회 결성식들이 진행되였다. 6월과 7월에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씨, 로씨야, 인디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준비위원회들이 조직되였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기념 준비위원회 결성행사들이 날과 달을 이어 진행되면서 세계를 위인칭송의 열풍으로 뜨겁게 달구고있다.

비록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가 있고 피부색과 언어, 풍습은 서로 달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결성식장들마다에서 울려나온 그들의 열정에 넘친 목소리를 들어보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로선을 제시하시고 모든 민족이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적인 민족으로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하여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주화된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체스꼬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소조 위원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마르크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한 연설에서 현대조선의 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은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고 하면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으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을뿐아니라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하시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공화국을 강위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김일성주석은 국제사회주의운동과 세계자주화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것으로 하여 만민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시라고,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려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본분이며 영예이라고 강조하였다.

벌써부터 세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해가며 명절분위기로 흥성거리고있다. 세계의 출판보도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광범히 소개선전하는가 하면 여러 나라들에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토론회, 회고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이 조직, 진행되고있다.

한편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혁명과 건설의 고귀한 지침이며 삶과 투쟁의 교과서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대대적으로 연구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지난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파키스탄 빅토리얼출판사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단행본발행식이 진행된것을 비롯하여 이딸리아, 꼬스따 리까, 로씨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발행사업이 널리 진행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우크라이나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새 세대 청년들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 적극 망라시켜 그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보급활동을 광범히 벌려나가는것을 자기들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들중의 하나로 정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로씨야국제자선기금 《세기의 예술의 보호자들》 총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까지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700개의 기념비들을 건립할것을 확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가장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들끓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감동적인 모습을 대할수록 우리 수령님을 열렬히 우러러따르고 흠모하는 만민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가 하는것을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정녕 행성에 펼쳐지는 위인칭송의 불멸의 화폭은 위대한 수령님을 오랜 세월 인류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 인류의 영원한 수령으로 모신 크나큰 행운을 지닌 만민의 한없는 격정과 환희의 분출이며 불멸의 대서사시이다.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흠모하는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2012년은 세월을 앞당겨 행성에 소리치며 찾아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전 영 희

외 국 인 들 높 이 칭 송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주체문학예술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표시하였다.

중국예술단 단장 손효홍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가극 《홍루몽》을 관람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가극 《홍루몽》 창조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가극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극은 훌륭히 완성되였다.

이를 통해서도 그이께서 지니신 특출한 예술적천품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가극을 관람하고 우리 예술단성원들은 흥분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이는 창조의 거장, 예술의 천재이시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조선의 예술은 날로 발전하고있다.

로씨야 엔. 에쓰. 나제쥬지나명칭 국립아까데미야 《베료즈까》 무용단 단장 미라 꼴조바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만나뵈옵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무용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귀중한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군 한다.

김정일동지는 예술의 대가이시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관현악과 합창 《눈이 내린다》를 비롯한 걸작들이 창조되였다.

우리는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과 여러곳을 참관하면서 그이께서 문학예술발전에 쌓으신 업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몽골조선친선협회예술단 성원 출론바따르 나짠토그토흐는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공연을 보고 흥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처럼 내용과 형식, 형상 등이 완전무결한 공연은 처음 보았다. 시대정신과 인민의 지향,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작품마다에 맥박치고있다.

김정일각하께서 이 예술작품창조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고 한다.

그이는 모든 분야에 정통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웰남기자협회대표단 성원 부 주이 흥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고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훌륭한 공연을 보았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조선의 예술인들이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창조의 거장, 예술의 영재

체스꼬단체 새해공동사설을 지지

당보, 군보, 청년보 새해공동사설을 지지하여 체스꼬 체히, 모라바, 실레지아로조협회가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공동사설이 밝힌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체히, 모라바, 실레지아로조협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올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것이다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기자회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이 발표된것과 관련하여 12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였다.

기자회견장소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중국의 보도부문 기자들, 베이징주재 외국특파기자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최진수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월 11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을 통보하였다.

대사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 중요한 쌍무적 및 다무적 합의들이 채택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행이 중도반단되였거나 통채로 뒤집혀졌다고 하면서 6자회담 과정은 당사자들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언제 가도 문제가 풀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궤도우에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이라고 하면서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의 중요성에 대하여 렬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하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지적된대로 별도로 진행될수도 있고 그 성격과 의의로 보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미회담처럼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진행될수도 있다.

제재라는 차별과 불신의 장벽이 제거되면 6자회담자체도 곧 열리게 될수 있을것이다.

정전협정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이상 자국의 리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이어 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본사기자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

중앙아프리카대통령 프랑쑤아 보지제가 최근 한 연설에서 올해 정부의 과업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정부가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을것이며 경제발전을 위해 금강석, 원유 등의 생산과 수출을 늘일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주민들이 빈궁을 청산하고 세계금융위기의 후과를 극복하는데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경 제 발 전 문 제 강 조

인도네시아대통령 쑤씰로 밤방 유도요노가 4일 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경제를 하루빨리 추켜세울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세계경제위기의 부정적후과를 성과적으로 극복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여 2011년까지 나라의 경제를 정상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발전도상나라들과의 긴밀한 협조밑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나갈 립장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서 방 의 모 략 선 전 을 단 죄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9일 이르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서방의 모략선전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최근 일부 서방나라들이 핵문제를 꺼들면서 이란이 지역에 위협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는 여론을 내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자주적인 국가들의 영상을 흐려놓기 위한 모략적인 행위로 락인, 단죄하였다.

서방의 이와 같은 처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그 어떤 방도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는 이란의 핵활동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목적을 띠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이 스 라 엘 의 반 인 륜 적 행 위 를 규 탄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0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북부에서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에게 사격을 가하여 2명을 살해하였다.

이스라엘군의 이러한 만행은 팔레스티나인들속에서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감자 문제상은 5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반인륜적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당국이 네게브사막지대에 있는 핵반응로부근에 팔레스티나인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을 설치해놓고 로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주변에 마구 매장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팔레스티나인수감자들이 암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의 위협을 받게 하고있는데 대해 폭로, 단죄하였다.

성명은 국제공동체가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급히 진행하며 이스라엘에 감옥을 당장 폐쇄하도록 압력을 가할것을 호소하였다.

팔레스티나인들이 1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라말라흐시부근에서 이스라엘의 《안전장벽》 건설책동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렸다.

시위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의 《안전장벽》 건설책동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규탄하고 그러한 행위를 당장 중지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강 추 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최근 강추위가 휩쓸어 피해를 입고있다.

강추위로 9일현재 도이췰란드에서 9명, 뽈스까에서 122명이 얼어죽었는데 그 대다수는 집이 없어 한지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한다.

또한 영국, 프랑스, 네데를란드, 스웨리예, 노르웨이 등 나라들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렬차와 비행기운행이 마비상태에 빠져 혼란이 조성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 평 가 시 돋 힌 《환 영》

최근 일본재무상으로 부수상 간 나오또가 임명된것과 관련하여 자민당 리사이며 이전 간사장인 가또가 그의 취임을 《환영》할 의향을 표명하면서 한 말이 가관이다. 그는 간 나오또가 《인차 발끈하는 사람이므로 공격하기 쉽다.》고 하였다.

그의 말인즉 정치적적수인 간 나오또가 참을성이 부족하고 성을 잘 내기때문에 그것을 리용하여 저들의 주장을 관철할수 있다는 소리이다. 역시 당파싸움을 유희처럼 여기는 일본의 정객들만이 할수 있는 가시돋힌 《환영》놀음이다.

보건대 가또는 현 정권이 간 나오또의 재무상임명으로 저들에게 여당파의 격전의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것으로 여기는것 같다. 당파싸움에 절을대로 절은 일본의 악취풍기는 정치풍토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긴 저마끔 승벽내기로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당파들사이의 치렬한 《마라손정쟁》으로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일본정계이고보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산 사람을 놓고 관을 짜는 식의 당파싸움이 연출되는 판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일본정객들의 당파싸움악습은 이처럼 지독하며 일본의 정치풍토는 더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런 정치풍토하에서 무슨 일인들 바로되겠는가. 피터지는 당파싸움으로 날과 달이 흐르는 일본의 앞날이 어떠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배 금 희

미군손실 증대

얼마전 아프가니스탄의 남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1명의 미군이 또 황천객이 되였다. 이로써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미군수는 그 전해에 비해 2배 늘어나 310명에 달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유럽안전조약상정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얼마전 로씨야대통령이 유럽안전조약초안을 해당 나라 지도자들과 나토, 유럽동맹, 독립국가협동체, 유럽안전협조기구 등 국제기구책임자들에게 보냈다.

조약초안에는 《새로운 유럽안전조약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자기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적되여있다. 또한 유럽안전조약참가국이 다른 한 참가국 혹은 여러 참가국들의 안전에 근본적으로 저촉되는 행동이나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며 그러한 행동에 가담하지도 지원하지도 않는다고 강조되여있다.

유럽안전조약초안에는 또한 조약참가국들은 유엔헌장 제51조에 기초한 자위권행사 절차에 따라 무력침공을 당한 참가국의 동의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이 나라에 군사적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줄 권리가 있다고 언급되여있다.

로씨야대통령이 제안한 유럽안전조약초안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우선 이 조약초안이 랭전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된다는것이다.

로씨야는 유럽안전조약초안을 제안하면서 방쿠버 (카나다의 서부지역 항구도시) 로부터 울라지보스또크 (로씨야의 동부지역 항구도시) 까지의 전공간을 포괄하는 이 조약이 드디여 랭전의 유물을 청산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였다.

로씨야의 이번 제안이 이전 쏘련과 미국의 첨예한 대결로 인하여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랭전의 후과를 없애기 위한것으로 된다는 근거는 이 조약이 체결되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지역의 넓은 공간을 포괄하는 군사기구가 창설됨으로써 미국주도하의 나토가 동쪽에로 계속 확대되는것을 막을수 있다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랭전이 종식된 후 미국주도하의 나토는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조일 목적밑에 동쪽에로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로씨야와 가까운 지역에 미국과 나토의 군사기지들이 전개되여있다.

얼마전에 미국이 뽈스까와 체스꼬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하였지만 실지로는 유럽의 다른 지역들에 배비할 심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씨야는 미국과 나토의 항시적인 위협에 대응한 전략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여있다. 로씨야가 이번에 제안한 유럽안전조약초안이 성사되게 되면 유럽에서 미국과 나토의 영향력이 약화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특히 나토의 동쪽에로의 확대움직임이 더이상 계속되기 어렵게 된다. 이로부터 미국과 나토 그리고 로씨야와 등진 유럽나라들이 이 조약체결에 대해 랭담한 반응을 보이고있다.

다음으로 로씨야가 이 유럽안전조약초안을 제안한것은 군사적충돌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볼수 있다는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난 세기말에 있은 발칸전쟁은 미국주도하의 나토가 일으킨 지역전쟁이였다. 당시 유엔과 유럽안전협조기구는 이 전쟁을 막지 못하였다.

2008년에 있은 그루지야사태는 미국의 보이지 않는 검은 손길이 뻗침으로써 로미대결의 일환으로 일어난 군사적충돌이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태들을 그 어느 국제정치군사기구도 막지 못하였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것을 방지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새로운 유럽안전조약이 필요하다는것이 로씨야의 립장이다.

로씨야가 조약초안을 제안한것은 또한 미국이나 나토에 의한 유럽의 분렬을 막고 유럽동맹과 독립국가협동체, 유럽안전협조기구의 성원국들을 포괄하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적문건을 채택함으로써 참가국들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데 있다고 분석가들은 평하고있다.

랭전종식후 로씨야는 줄곧 유럽의 안전보장문제에서 미국과 나토때문에 자기의 응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최근년간 로씨야는 미국과 나토의 패권주의정책에 대응할수 있을뿐아니라 북아메리카와 유럽, 중앙아시아 등을 포괄하는 효률적인 국제군사기구를 내오는것을 자기의 대외정책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각방으로 노력하고있다.

로씨야의 이번 제안은 지난기간 유럽의 안전을 럭대고 로씨야를 계속 압박해오던 미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로 된다는것이 여론의 분석이다.

로씨야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유럽안전조약초안의 성사여부는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이 조약을 찬성하는가, 거부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미국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다. 한것은 여러 유관국들과 국제기구들이 이 조약초안토의사업에 긍정적으로 나서고있기때문이다.

로씨야대통령이 제안한 유럽안전조약초안을 둘러싼 움직임은 국제무대에서 지역적인 군사적충돌사태발생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현시기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고있다. 동북아시아와 중동, 중앙아시아, 까스삐해지역, 라틴아메리카의 중부지역과 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들에서 언제, 어느 시각에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전쟁과 군사적충돌사태가 발생할지 알수 없다.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에 의해 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첨예한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쟁이 터져 다른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과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국제사회성원들은 평화적환경마련에 커다란 주목을 돌리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채 일 출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미군의 살인만행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이 《반테로》의 미명하에 파키스탄인들에 대한 살인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1일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미싸일공격을 가함으로써 3명의 무고한 주민을 또 살해하였다.

9일 미군은 또다시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상공에 무인기를 들이밀어 2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그리하여 4명의 무고한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앞서 6일에도 미군은 파키스탄의 북부와지리스탄지역에 2차례에 걸쳐 무인기들을 들이밀어 미싸일공격을 가함으로써 7명의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미군의 이러한 살인만행은 현지주민들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한다.

여 러 나 라 에 서 지 진

따쥐끼스딴의 동남부지역에서 2일 리히터척도로 5.1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1 000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2만여명의 리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전력공급과 통신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현지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있다 한다.

마리아나제도에서 2일 리히터척도로 6.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진앙은 팜도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33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편 이날 인도네시아의 말루꾸주에서 리히터척도로 5.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싸움라끼로부터 서북쪽으로 189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이 나라의 파푸아주에서 리히터척도로 5.6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아이띠에서 지진피해

ㄱ-01010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집위원회